

논 단



-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소수민족 차별
- 중국의 체제전환과 도시종족공동체 재형성

조흥국

예동근



조 홍 국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seathai@pusan.ac.kr)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소수민족 차별¹⁾



I. 서론

라오스는 면적은 236,800km²이고 인구는 2009년 현재 약 68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나라는 1997년에 아세안(ASEAN)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지만, 1인당 GDP가 2008년도 구매력 평가(ppp) 기준 2,100달러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이다.²⁾ 특히 평균수명, 문명률, 교육, 1인당 GDP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측정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2007년도의 경우 0.619로 세계 133위를 기록하여, 가장 열악한 국가 그룹에 속했다.³⁾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LPRP)이라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인권 탄압이 심각한 나라이다. 헌법이 LPRP만 유일한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라오스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의지로 정부를 선출할 수 없다. 발표와 언론 및 집회의 자유는

없으며, 종교적 자유는 공인된 방식과 통제된 형태에서만 허용된다. 관료사회에서의 부패와 인신매매는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적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점차 심해지고 있다.⁴⁾ 개혁개방 이후 선진국들로부터의 개발원조가 점차 많이 들어오고 투자도 증대되면서 라오스는 조금씩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라오스 국민은 사적인 사업도 할 수 있고 외국으로 여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인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정부에 반항적인 자는 구속되고 고문을 당한다.⁵⁾

동남아시아에서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인 라오스는 북쪽에 중국, 동쪽에 베트남, 남쪽에 캄보디아, 서쪽 및 서남쪽에 태국, 서북쪽에 미얀마 등과 접해 있다. 이러한 이웃국가들의 주민들과 라오스의 주민들은 민족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그것은 이 나라들 간의 국경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정해지기 전 오랜 기간 상호 전쟁과 영토 점령의 역사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의 결과이다. 라오스에는 그러한 지리적 위치와 이웃국가들과의 역사적 관계로 인해 다양한 민족들이 산다. 라오스의 이웃국가들에서는 중국의 한(漢)족, 베트남의 비엠티(Viet)족, 태국의 타이(Thai)족, 캄보디아의 크메르(Khmer)족, 미얀마의 버마(Bama)족 등 특정 다수민족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그에 비해 라오스에서는 다수민족인 라오(Lao)족이 전체 인구의 반을 겨우 넘는 약 5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소수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민족들은 그 높은 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차별 내지는 탄압을 받고 있는 등, 라오스에서는 민족 및 종족 문제가 민감하다.⁶⁾

이 연구는 라오스에서의 소수민족 정책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소수민족 차별의 실제와 그 배경 및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그동안 한국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라오스에서의 다수민족 중심적인 소수민족 정책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II. 라오스 국민국가의 형성

11-12세기 기간 캄보디아의 앙코르(Angkor) 왕국의 주변 지역에 타이(Tai)족이 정착하여 사는 성읍국가들이 많이 생겨났다. 13-14세기가 되면 오늘날 태국 땅과 라오스 땅에 타이족

1)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The CIA Worldfactbook, Laos, 2009/10/28.
3) UNDP,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New York: UNDP, 2009). 참고로 한국은 0.937로 26위, 일본은 0.960으로 10위를 기록했다.

4) The U.S. Department of State, "2008 Human Rights Report: Laos," 2009.
5) Bounsang Khamkeo, "Asia's Other Burma," The Wall Street Journal, 2008/6/11.
6) Grant Evans, "Ethnic Change in Highland Laos," In Grant Evans, ed., Laos: Culture and Society (Singapore: ISEAS, 2000), pp. 125-147.

의 여러 왕국들이 등장했다. 그 중 하나가 파 응움(Fa Ngum)이라는 한 라오족 왕자가 크메르 군대의 도움으로 1353년에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즉 루앙파방(Luang Phabang)⁷⁾에 세운 란상(Lan Sang) 왕국이다. 그는 사방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란상 왕국의 영역은 서북쪽으로는 치앙훙(Chiang Hung)까지, 동북쪽으로는 오늘날 베트남과의 국경 일대까지, 남쪽으로는 비엔티안(Vientiane) 즉 위양짠(Viang Chan)⁸⁾과 사완나켓(Savannakhet) 그리고 오늘날 태국 동북부의 나콘파놈(Nakhon Phanom)과 로이엣(Roi Et)까지 미쳤다. 파 응

두 번의 반란을 경험한 태국의 군대는 최근의 진원지인 위양짠을 불교사원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황폐화했으며 주민들을 포로로 붙잡아 태국 영토에 정착시켰다.

움을 계승한 운 호안(Un Hüan) 왕 때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란상 왕국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부터 60세까지의 남자 인구만 약 70만 명 되었다.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란상은 15세기 초까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강국 중 하나로 행세할 수 있었다.

바다와 접하지 않은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가운데 대외 관계가 가장 적었다. 17세기에 네덜란드동인도회사로부터의 사절과 몇 명의 예수회 신부들의 방문을 제외하고는 유럽인과의 접촉이 없었다. “백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을 가진 란상 왕국은 초기부터 몇 개의 므앙(muang) 즉 성읍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고 주위의 강국들로부터 침범을 당했다. 이미 15세기에 베트남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란상 왕국은 16세기에는 미얀마의 공격을 받았다. 1563년에 란상 정부는 수도를 루앙파방에서 남쪽의 위양짠으로 옮겼다. 이 천도는 당시 미얀마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비라는 전략적 목적 외에도 왕국의 중심을 무역을 위해 더욱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경제적 고려도 갖고 있었다. 태국의 아유타야(Ayutthaya)와 캄보디아의 시장에 가까이 놓여 있는 위양짠은 이미 16세기 전반에 상업적으로 번성하던 도시였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러한 천도에도 불구하고 란상 왕국은 1565년에 미얀마 군대에게 점령되었다.

란상 왕국은 17세기 수린야왕사(Surinyavongsa 재위 1637-1694) 왕 시대에 다시 강력하고 안정된 형국을 맞이했으나, 이 왕의 사후 나라는 위양짠, 루앙파방, 찰빠삭(Champasak) 등

상호 적대적인 세 왕국으로 분열되었다. 라오스는 18세기 중엽에 재차 미얀마의 공격을 받아 1760년대에 루앙파방이 점령되었다. 라오스는 미얀마 군대가 물러간 뒤에는 태국의 팽창주의의 희생제물이 되었다. 라오스는 태국의 톤부리(Thonburi) 왕조의 공격을 받아 1778년에 점령되어, 세 왕국은 모두 태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⁹⁾

라오스는 19세기 초에 재기를 시도했다. 위양짠 왕국의 새로운 통치자인 아누웁(Anouvong 재위 1804-1828)은 찰빠삭 왕국으로 위양짠의 영향을 확대하는 등 위양짠 왕국의 세력 증강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짜오 요(Chao Yo)를 찰빠삭의 통치자로 세우는 데 성공한 후, 1827년 초 찰빠삭과 함께 태국에 반란을 일으켰다. 태국의 동북부를 지나 사라부리(Saraburi)까지 진격한 라오스 군대는 그러나 곧 태국 정부군의 반격을 받아 패퇴했다. 태국 군대는 그 해 4-5월 위양짠과 찰빠삭을 점령하여 그동안 구축된 진지와 요새들을 모두 파괴했다. 아누웁은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베트남 군대와 함께 돌아와 위양짠을 탈환하고 태국을 재차 공격했으나 1828년 위양짠으로 파송된 태국 군대에 체포되었고 방콕에 끌려와 처형되었다. 두 번의 반란을 경험한 태국의 군대는 최근의 진원지인 위양짠을 불교사원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황폐화했으며 주민들을 포로로 붙잡아 태국 영토에 정착시켰다. 아누웁의 반란 이후 방콕 정부는 라오스의 메콩강 동부 지역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베트남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830-40년대 시앙꽁(Xiang Khuang) 등 메콩강 동부의 라오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부분 강 건너 코랏(Khorat) 고원 즉 오늘날 태국의 동북부 지방들로 이주시켰다.¹⁰⁾

주지하다시피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19세기에 서양 열강에 의해 식민화되었다. 라오스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 식민화가 가장 늦었다. 그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세기 초에 태국의 영토로 편입된 라오스가 19세기 말에 서구인들의 눈에는 태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즉 라오스를 식민지로 만들려면 태국과의 충돌을 각오해야 했던 것이다. 프랑스가 라오스를 식민화한 것은 오귀스트 파비(August Pavie)라는 한 프랑스인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루앙파방의 프랑스 부영사로 부임한 그는 라오스가 베트남의 속국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활동을 중심으로 프랑스인들은 라오스를 프랑스의 식민지로 만들 가능성을 찾고 또 자원을 개발하고 중국 내지로의 수로를 통한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목

7) 라오스 발음으로는 ‘루앙파방’이 정확하다. ‘루앙프라방’은 ‘루앙파방’의 태국식 발음이다.

8) 라오스 수도는 현지 발음으로 ‘위양짠’ 혹은 ‘위양짠’으로 읽힌다. 필자는 라오(Lao)어의 한글 표기를 국립국어원의 『2004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용례집』에 나와 있는 타이(Thai)어의 한글 표기 원칙에 따랐다. 그것은 타이어와 라오어 간의 언어적 상관성 때문이다. ‘Vientiane’ 즉 ‘비엔티안’은 프랑스인들이 ‘위양짠’을 프랑스어로 표기한 것이다.

9) Michael Schultze, Die Geschichte von Laos: Von den Anfängen bis zum Beginn der neunziger Jahre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1994), pp. 54-62.

10) David K. Wyatt, Thailand: A Short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p. 163-172.

적으로 메콩강을 탐사했으며, 방콕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892년에서 1893년 사이에 양측 간 충돌이 일어났다. 라오스의 식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프랑스 정부는 1893년에 태국의 짜오프라야(Chao Phraya) 강의 하구를 전함으로써 봉쇄한 소위 뻑남(Paknam) 사건을 일으켰다. 프랑스와의 정면 충돌을 감당할 수 없었던 방콕 정부는 결국 라오스를 프랑스에게 할양했다.¹¹⁾

식민화는 위앙짠, 루앙파방, 째빠삭 등 세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던 라오스가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다. 식민주의 시대에 라오스에서는 민족주의적 저항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나라에 근대적 교육과 사상이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으며 도입된 교육의 수혜자가 대부분 왕족을 중심으로 한 지배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식민 당국은 왕실과 관료사회를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전통적인 지배 엘리트층이 그 백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로써 라오스의 엘리트층은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 동기나 필요성을 별로 갖지 못했다.

세계대전의 종식 후 라오스의 독립은 식민지를 자신의 영향 하에 계속 두고 싶어 하는 프랑스의 이해관계, 왕실의 대부분의 친프랑스적인 자세, 베트남의 공산주의 조직인 베트남(Vietminh)의 활동과 영향 등의 요인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베트남의 지원을 등에 업은 빠텟라오(Pathet Lao)라는 라오스 공산주의 조직이 라오스 동북부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다. 라오스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끝난 것은 1953년에 프랑스 정부가 이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한다는 선언과 1954년의 제네바 회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1954년 라오스에 입헌군주제의 독립 정부가 들어섰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특히 빠텟라오의 영향 하에 공산주의자들이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냉전 시대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중립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러한 노력은 베트남전쟁의 소용돌이 앞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결국 베트남전쟁이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난 1975년에 라오스는 빠텟라오가 정권을 잡아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¹²⁾

Ⅲ. 식민시대와 독립 왕실정부 시대 라오스의 민족 분류

영국 식민 정부는 인도에서 인구조사 시 인도 주민을 카스트로 분류했는데, 이 분류 작업은 그 후 카스트 체계의 성격, 구조, 기능 등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식민 정부가 라오스에서 행한 인구조사의 의미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조사는 1911년, 1921년, 1931년, 1936년, 1942년에 행해졌다. 이 인구조사들을 통해 라오스의 주민들이 민족별로 분류되었다. 프랑스의 인구조사 전에는 라오스에서 전통 왕국 시대 어떠한 민족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¹³⁾

〈표 1〉 식민주의 시대 라오스의 인구 분류와 구성 ¹⁴⁾

	1911		1931		1942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라오	276,801	45	485,000	50	441,450	43.6
따이	124,238	19	113,000	12	175,170	17.3
카	195,996	27	268,000	28	300,138	29.6
메오-야오*	15,205	3	39,000	4	49,240	4.9
베트남인	4,109	0.7	19,000	2	39,470	3.9
화인	486		3,000	0.3	6,100	0.6
유럽인**	389		1,000	0.1	900	0.1
캄보디아인	1,270	0.2				
인도-파키스탄인	6					
합 계	618,500		964,000		1,012,468	

* '메오'(Meo)와 '야오'(Yao)는 몽(Hmong)과 미안(Mien)에 대한 타이어 및 라오어 명칭임.

** 프랑스인과 혼혈 유럽인을 합친 것.

프랑스인들은 라오스의 주민을 라오(Lao), 따이(Tai), 카(Kha), 메오-야오(Meo-Yao), 베트남인, 화인(華人), 유럽인, 캄보디아인, 인도-파키스탄인 등 9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 분류는 인종 및 종족의 구분에 따른 것이었다. 따이의 인구 비율이 카보다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따이 그룹을 라오 그룹 바로 밑에 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따이와 라오는 오스트로-따이(Austro-Tai) 어족의 따이-까다이(Tai-Kadai) 어파의 민족에 속하는 데 비해, 카 그룹의 몬-크메르(Mon-Khmer) 어파의 민족들은 오스트로아시

11) Michael Schultze, Die Geschichte von Laos: Von den Anfängen bis zum Beginn der neunziger Jahre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1994), pp. 75-79.

12) 조홍국 · 이광수 · 이희수 · 박구병 · 이한규, 『제3세계의 역사와 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38-84쪽.

13) Vat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 152.

14) Vat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 224 재정리.

아(Austroasiatic) 어족에 속한다는 언어-민족학적 구별이다.¹⁵⁾ 둘째, 카 그룹의 민족들에 대한 전통적인 멸시이다. 식민 시대에 활동했던 프랑스 학자인 폴 르 블랑제는 ‘카’가 햇볕에 검게 탄 피부, 곧바르게 발달한 코, 길게 찌지지 않은 눈, 오두막집에서의 생활, 화살의 사용, 말레이-폴리네시아 언어들과 친척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한 언어의 사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야만인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다.¹⁶⁾

프랑스 식민 정부가 행했던 라오스의 인구조사에서 ‘카’로 분류된 집단은 나중에 라오스 정부가 발표한 라오스 인구 분류상의 몬-크메르계 그룹과 대체로 동일시될 수 있다. ‘카’는 타이어 및 라오어에서는 ‘노예’, ‘종복’, ‘하인’ 등을 뜻하며, 이 단어가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몬-크메르계 소수민족들이 타이족이나 라오족 등의 타이계 민족들과 함께 공존하는 곳에서만 나타난다고 한다.¹⁷⁾ 즉 몬-크메르계 민족들에 대한 타이계 민족들의 멸시감과 우월의식 등이 내포되어 있는 ‘카’라는 용어는 태국과 라오스에서는 원래 계급 내지는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2000년에 확정된 라오스 민족 분류상의 몬-크메르 그룹에는 31개의 종족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카 그룹의 종족들 간에는 언어, 제의, 관습, 주거 및 복식 등의 문화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식민 시대 프랑스 관리와 학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종족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그리고 타이족 및 라오족 등 타이계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하나의 계급적 개념으로 사용해 왔던 용어를 차용하여 ‘카’라는 새로운 종족 그룹의 개념을 창안했던 것이다.¹⁸⁾

프랑스 식민 정부의 인구조사 통계 수치는 라오스 정부가 독립 이후 실시한 인구조사의 것과 비교할 때 그룹 간 비율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아마 라오스에 산악 지대가 많고 당시 라오스의 종족들에 대한 민족학적 연구가 충분하게 행해지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실시한 연구조사와 주민 분류는 라오스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세금 징수의 행정적 제도 수립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사실 다양하고 복잡한 라오스의 소수민족들에 대한 엄격하고 상세한 분류 작업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점은 라오(Lao)인과 비(非)라오인을 구분하는 것이었

다. 비라오인 그룹에는 프랑스인을 포함한 유럽인과 화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외국인(Asian foreigners)이 속했다. 이들에게는 라오인과는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되었다.¹⁹⁾

프랑스 식민 정부의 라오스 주민 분류 체계는 독립한 라오스 왕실 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그것은 1955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나타났다. <표 2>에서 엿볼 수 있듯이, 라오스 정부는 프랑스인들과 마찬가지로 라오스의 토착 주민들을 라오, 타이, 카, 메오-야오의 네 그룹으로 파악했다. 프랑스 식민 정부의 분류 방식과 다른 점은 1955년의 분류에서는 라오 그룹과 타이 그룹이 ‘라오-타이’라는 한 단일 그룹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라오스 정부가 비라오적인 종족들과의 종족적 구분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러한 종족적 구분 의식의 근저에 라오족 중심의 시각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²⁰⁾

<표 2> 1955년 라오스의 주민 구성 ²¹⁾

	라오-타이	카	메오-야오	베트남인	화인	유럽인	인도-파키스탄인	합계
인구수	856,000-865,000	210,000-258,000	52,300-52,900	8,000*	32,350*	8,000	500	1,291,951-1,320,402

* 1959년도 추정치

1950년대 라오스 왕실 정부가 라오스에서의 민족 문제와 관련하여 행한 또 다른 중요한 조치로 라오스 내의 민족들을 ‘라오 룬(Lao Lum)’, ‘라오 텅(Lao Theung)’, ‘라오 송(Lao Sung)’의 세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 있다. ‘라오 룬’은 ‘저지대 라오인’, ‘라오 텅’은 ‘산중턱 라오인’, ‘라오 송’은 ‘고지대 라오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²²⁾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오’라는 공통분모이다. 라오스 정부는 이 새로운 분류 체계를 통해 각 민족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과거의 민족 명칭을 다 없애고 그 대신 라오스 내 모든 민족이 라오스의 국민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인류학자인 할펀이 이미 1960년대 초에 지적했듯이 이 분류는 라오스 정부가 국가 통합의 일환으로 행한 하나의 정치적 조치에 불과

15) Amara Prasithrathasint, “The Linguistic Mosaic,” In Grant Evans, ed., Asia’s Cultural Mosaic: An Anthropological Mosaic (New York: Prentice Hall, 1993), p. 79 figure 3.3.

16) Paul Le Boulanger, Histoire du Laos Français: Essai d’une Étude chronologique des Principautés Laotiennes (Paris: Librairie Plon, 1931), pp. 15-16.

17) Jan Ovesen, “All Lao? Minoritie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Christopher R. Duncan, ed., Civilizing the Margins: Southeast Asian Government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Minorit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p. 218-219.

18) Vat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 27.

19) Vat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 153.

20) Vat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 154.

21) Vat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 224.

22) 서양학자들 중에는 ‘룬’이 ‘계곡(valley)’을, ‘텅’이 ‘산비탈(slope)’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자가 많다. 예컨대 Jan Ovesen, “All Lao? Minoritie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Christopher R. Duncan, ed., Civilizing the Margins: Southeast Asian Government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Minorit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 216. 그러나 ‘텅’의 원래 의미는 ‘위’, ‘윗부분’이며, ‘룬’은 ‘밑’, ‘아래’, ‘낮은’ 등을 뜻한다.

했다.²³⁾

IV.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소수민족 정책

1975년 12월 라오스의 정권을 장악한 빠렛라오 공산주의 세력은 왕실 정부를 없애고 라오인민민주공화국(LPDR)을 세웠다. LPDR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직접적으로는 베트남 민족학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88년 수도 위앙짠에 신설된 라오스 민족학연구소는 베트남 민족학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설립되었으며, 연구소의 소장을 비롯한 주요 연구원들은 모두 베트남에서 공부한 자들이었다. 라오스의 민족학자들은 라오스에서 인구 및 민족 조사를 할 때 관련 베트남 문헌을 기본 자료로 이용했다. 라오스에서의 민족 연구와 조사는 베트남의 것을 모델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그러나 LPDR 정부의 민족 정책은 멀리는 소련에서의 민족 인식 내지는 민족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스 및 레닌주의의 민족 정책은 사실 라오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중국과 베트남의 소수민족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정부들은 민족 이슈가 국가의 발전에 종속된 것이라는 국가중심적 관점을 견지했으며, 소수민족들에 대해서는 낙후·퇴보된 소수민족들이 지도와 계몽을 통해 진보적 민족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진화론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²⁵⁾ 예컨대 베트남의 대표적인 공산주의 민족학자 중 한 사람인 레 반 하오(Le Van Hao)는 197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종족 집단들의 형성과 발달, 그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삶의 특징을 연구하여 그들의 가장 좋은 전통들을 세상에 알리고 낙후된 유산들은 하나씩 제거하며 이로써 그들의 사회를 개선시키고 나아가서는 종족 집단들 간 연합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국가적 자부심을 증진시키는 것이 베트남 민족학자들의 과제라고 설론했다.²⁶⁾

이러한 민족진화론에 입각한 LPDR 정부의 라오스 민족 형성에 관한 생각은 라오스 국립

사회과학연구소에서 2009년에 간행된 라오스 민족학 개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민족학 개론서는 종족 및 민족이 씨족(kok), 부족(saha koksit), 종족(phao), 민족(son sat), 인종(suea sat), 국민(san sat) 등의 여섯 단계로 진화한다고 본다.²⁷⁾ 이 설명에서 LPDR 정부의 라오스 민족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산 샷’ 즉 국민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산 샷’은 “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그 구성원의 자격은 사람들 간에 신체적 형태나 문화가 서로 달라도 법에 의해 획득된다고 말한다.²⁸⁾

국립사회과학연구소의 상기 설명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국부인 까이손 폼위한(Kaysone Phomvihane)의 민족 형성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까이손은 1981년 6월에 소수민족 문제에 관해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은 1982년에 ‘라오 국가공동체 내의 다양한 종족그룹 간 단결 강화(soem kha-nyai mun suea haeng khuam samakkhhi lavang phao tang tang nai vongkhana-nyat haeng sat lao)’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발간되었다. 라오스 민족 형성에 관한 그의 사상은 민족진화론과 라오족 중심의 국가주의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까이손 역시 민족 진화의 단계를 씨족(kok), 부족(lao), 종족(phao), 민족(sat), 인종(suea sat), 국민(pathet sat) 등으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계급분화가 계속 진행되며 인간의 상호관계가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지면 씨족 및 부족 사회는 퇴화된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 집합체인 종족 사회가 발달하는데, 종족들은 각각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있지만 한 지역에서 각자 분리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은 자급자족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족을 포함한 주민 집단들이 역사적으로 상호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언어, 주거지, 생활 및 사고방식 등을 공유하게 되면 민족으로 발전한다. 끝으로 국민은 다양한 공동체들이 결합된 것으로, 각각의 공동체가 비록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같은 영토에서 그리고 같은 행정체제와 헌법 및 사법체제 아래에서 살려는 의지를 갖고 동일한 역사적 운명 내에서 통합된 인간집합체이다.²⁹⁾



23) Joel M. Halpem, *Economy and Society of Laos: A Brief Survey* (New Haven: Yale University Southeast Asian Studies, 1964), p. 5.

24) Grant Evans, "Apprentice Ethnographers: Vietnam and the Study of Lao Minorities," In Grant Evans, ed., *Laos: Culture and Society* (Singapore: ISEAS, 2000), pp. 166-167.

25) Grant Evans, "Apprentice Ethnographers: Vietnam and the Study of Lao Minorities," In Grant Evans, ed., *Laos: Culture and Society* (Singapore: ISEAS, 2000), pp. 162-163.

26) Grant Evans, "Apprentice Ethnographers: Vietnam and the Study of Lao Minorities," In Grant Evans, ed., *Laos: Culture and Society* (Singapore: ISEAS, 2000), p. 163에서 재인용.

27) Sathaban Vithayasat Sangkhom Haeng Sat, *Sok ru sonphao nai lao* [라오스의 민족에 대한 이해] (Wiang Chan: Sathaban Khonkhwa Sonphao Lae Sasana, 2009), pp. 17-29.

28) Sathaban Vithayasat Sangkhom Haeng Sat, *Sok ru sonphao nai lao* [라오스의 민족에 대한 이해] (Wiang Chan: Sathaban Khonkhwa Sonphao Lae Sasana, 2009), p. 29.

29) Grant Evans, "Apprentice Ethnographers: Vietnam and the Study of Lao Minorities," In Grant Evans, ed., *Laos: Culture and Society* (Singapore: ISEAS, 2000), pp. 169-170; Va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p. 170-171.

카이손과 라오스의 민족학자들이 중시하는 최종적인 민족 진화의 단계는 '국민'이다. 특히 카이손은 '국민'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모종의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5년 혁명 직후 라오스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추구한 국가 건설은 민족적 의식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에 기반을 둔 국가 건설이었다. 그러나 늦어도 1980년대 초부터 카이손은 국가 건설에서 종족 내지는 민족 의식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³⁰⁾ 그리하여 그는 한편으로는 라오스 내의 종족 및 민족들이 민족진화론에 입각하여 라오스 국민으로 발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종족 및 민족들이 그러한 의지를 갖도록 LPDR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후자의 측면과 관련하여 카이손은 1982년에 행한 한 연설에서 "종족 문제는 라오스에서 라오(Lao)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의 당은 사회주의 변혁의 대의를 수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은 각 종족의 특수한 측면과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의 조화로운 이익을 고려하면서 종족들과 민족들 간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서 이 목표를 위해 소수민족들의 교육 증진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조건의 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³¹⁾

LPDR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1970년대 말부터 나라 전체에 걸쳐 시행된 인구조사와 민족분류 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라오스 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나라 전체에 걸쳐 민족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분류 작업을 해나갔다. 민족지적 조사의 기본 원칙은 '민족적 평등주의'와 '진화론'이었다. '진화론'은 민족 그룹을 문명적 발전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려는 것으로,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두 원칙 중 특히 후자의 진화론과 관련하여, 라오스 정부는 민족지적 조사에서 민족들의 "나쁜" 문화는 폐기하고 "좋은" 문화는 더욱 육성하여 국가적 통합에 바람직한 민족 정체성을 창출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³²⁾ 다시 말하면, 정부는 국가 내의 민족들의 종족성(ethnicity)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규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민족지적 조사 결과로 보고된 라오스의 민족 숫자는 여러 번 수정되었다. 인구조사의 초

30) Vat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p. 172-173.
 31) Vat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p. 156-157.
 32) Vat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p. 157-160.

기 보고서는 260개의 민족을 언급했다. 1983-1985년 인구조사에서는 820개의 민족이 파악되었다.³³⁾ 민족의 수는 때로는 200, 150, 131 등으로 보고되기도 했는데, 너무 많은 민족 수에 경악한 라오스 정부는 인구조사 담당기관에게 더욱 "합리적인" 목록 작성을 요구했다. 그 결과 1999년의 재조사를 통해 4개 언어 그룹의 49개 민족이 보고되었고, 이 숫자는 라오 국가건설전선(LFNC)³⁴⁾의 2000년 8월 회의에서 받아들여져 라오스 내 민족들의 공식적인 숫자로 확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소수민족들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민족이 원래 제시한 명칭 대신 베트남의 민족 분류에서 사용되었던 소수민족 명칭이 붙여지기도 했다.³⁵⁾

〈표 3〉 2005년 라오스의 49개 민족 (숫자는 인구 비율)³⁶⁾

라오-따이	몽-미안		중국-티베트		몬-크메르									
	라오	몽	아카	티베트	공무	따오***	브라오	나헌	라워	카메****	똘	응우안	모이	꼬리
54.6	8.8	0.5	0.7	0.7	10.9	0.1	0.4	0.4	0.4	0.4	0.4	0.0	0.1	0.0
따이	이우미안*	푸노이**	라후	싱문	까땅	까뚜	라락	카메****	0.1	0.1	0.1	0.1	0.1	0.1
3.8	0.5	0.7	0.3	0.2	2.1	0.4	0.4	0.4	0.1	0.1	0.1	0.1	0.1	0.1
푸타이			실라	퐁	마공	라락	카메****	0.1	0.1	0.1	0.1	0.1	0.1	0.1
3.3			0.1	0.5	2.1	0.4	0.4	0.4	0.1	0.1	0.1	0.1	0.1	0.1
르			하이	텐	야루	꼬리앙	응우안	0.0	0.0	0.0	0.0	0.0	0.0	0.0
2.2			0.0	0.0	0.8	0.2	0.0	0.0	0.0	0.0	0.0	0.0	0.0	0.0
유안			롤로	어두	뜨리앙	쟁	모이	0.0	0.0	0.0	0.0	0.0	0.0	0.0
0.5			0.0	0.0	0.5	0.1	0.1	0.1	0.1	0.1	0.1	0.1	0.1	0.1
색			호	빗	따오이	사당	꼬리	0.0****	0.0	0.0	0.0	0.0	0.0	0.0
0.1			0.2	0.0	0.5	0.8	0.2	0.0	0.0	0.0	0.0	0.0	0.0	0.0
양			0.2	0.0	0.5	0.8	0.2	0.0	0.0	0.0	0.0	0.0	0.0	0.0
0.1			0.2	0.0	0.5	0.8	0.2	0.0	0.0	0.0	0.0	0.0	0.0	0.0
타이노아					0.4	0.2	n.a.							

* 일반적으로 '미안' (Mien)이라고 불림. ** '싱실리' (Singsili)라고 불리기도 함.
 *** '삼따오' (Sam Tao)라고 불리기도 함. **** 크메르(Khmer)족을 가리킴.
 ***** '0.0'의 비율은 2,900명 미만 즉 라오스 총인구의 0.05% 미만의 경우임.

V. 라오족 중심주의와 소수민족 차별

라오스의 소수민족들은 법적으로는 라오족과 평등하게 취급된다. LPDR 정부는 독립 후

33) Grant Evans, "Apprentice Ethnographers: Vietnam and the Study of Lao Minorities," In Grant Evans, ed., Laos: Culture and Society (Singapore: ISEAS, 2000), p. 178.
 34) LFNC(Lao Front for National Construction)는 라오스의 가장 중요한 대중 조직이며, 그 산하에 민족 연구 기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Vat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 7 참고.
 35) Vat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p. 161-163.
 36) Sathaban Vithayasat Sangkhom Haeng Sat, Sok ru sonphao nai lao [라오스의 민족에 대한 이해] (Wiang Chan: Sathaban Khonkhwa Sonphao Lae Sasana, 2009), pp. 60-63 재정리. 2000년 8월 LFNC의 회의에서 확정된 라오스의 민족 분류와 명칭은 Vat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 226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48개의 민족 명칭만 나와 있다.

라오스 정부가 '라오 룬', '라오 텅', '라오 송' 등으로 민족을 분류하던 방식을 2002년에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신 앞 장에서 본 것처럼 각 민족의 이름을 중시한 분류 체계를 확립했다.³⁷⁾ 라오스에서의 민족 정책의 기본 방침은 1991년에 개정된 라오스 헌법 제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다양한 종족 그룹들 간 통합과 평등의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모든 종족 그룹은 자신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이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 종족 그룹 간 차별은 금지된다. 국가는 모든 종족 그룹의 경제적 및 사회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상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행할 것이다.³⁸⁾

라오스의 소수민족들은 그러나 실제로는 차별과 심지어 탄압을 받고 있다. 상기의 헌법 규정에서도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문화적 전통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인 이해관계는 소수민족들의 것에 대해 우선시된다. 그것은 특히 불교에 대한 라오스 당국의 자세에서 엿볼 수 있다. 라오스에서 불교는 인구의 40% 미만이 믿는 종교이다.³⁹⁾ 대부분의 소수민족 주민들은 정령신앙을 믿거나 몽(Hmong)족의 경우처럼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제법 있다. 오늘날 몽족의 12-15%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대부분은 개신교 기독교인이다.⁴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유물론적 무신론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는 불교를 국가적 전통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동구 공산권의 붕괴 이후, 라오스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민심을 획득하여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갈수록 불교를 우대하고 있다.⁴¹⁾ 그에 반해 불교를 중심으로 한 라오스의 국가적 문화에 상처되는 소수민족의 문화는 억제되고 있다.

37) Jan Ovesen, "All Lao? Minoritie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Christopher R. Duncan, ed., *Civilizing the Margins: Southeast Asian Government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Minorit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 224.

38) The Constitution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dopted by the 6th Session of the People's Supreme Assembly (2nd Legislature), Vientiane, 13-15 August 1991. <http://www.laocembassy.com/news/constitution/constitution.htm> (검색일 2009/11/7).

39) Jan Ovesen, "All Lao? Minoritie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Christopher R. Duncan, ed., *Civilizing the Margins: Southeast Asian Government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Minorit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 223.

40) Jan Ovesen, "All Lao? Minoritie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Christopher R. Duncan, ed., *Civilizing the Margins: Southeast Asian Government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Minorit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p. 220-226.

41) Grant Evans, "Secular Fundamentalism and Buddhism in Laos," In Oh Myung-Seok and Kim Hyung-Jun, eds., *Religion, Ethnicity and Modernity in Southeast Asi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8), p. 193.

라오족의 공산주의 세력과 소수민족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상호 우호적이었다. 빠텟라오가 공산주의 혁명에서 성공적이었던 것은 식민지배 기간 프랑스에 대해 그리고 독립 후 친 프랑스적인 라오스 왕실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라오 송과 라오 텅의 소수민족들이 혁명 세력에게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빠텟라오 군사력의 상당 부분은 사실 라오 텅과 라오 송 출신의 전투원이었다. 혁명 후 LPDR 정부가 국가의 고위직에 많은 소수민족 출신 간부들을 기용한 것은 그러한 배경에서였다.

혁명 직후 라오스 정부는 레닌주의의 "사회주의적 조화" (socialist harmonization)의 정신에 입각하여 라오스의 모든 민족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동참하는 평등한 인민으로 간주하고 나아가서는 민족 간 구분 즉 다시 말하면 민족 정체성을 초월하여 한 민족(one nation)의 라오스 국가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주의적 목표는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 요구가 등장하자 손쉽게 포기되었다. 예컨대 초기에 소수민족 출신 간부들이 대거 기용되었던 정부 고위직은 전문적인 관료 인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자, 점차 베트남 혹은 프랑스 그리고 나중에는 소련에서 교육받은 라오 룬 출신 간부들에 의해 채워졌다.⁴²⁾

평등의 원칙으로 출발한 라오스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점차 라오족 즉 라오 룬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했다. 민족 분류 작업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민족들의 다양성이 인정되었지만, 국가 운영은 라오족 중심으로 되어 갔다. 이것은 특히 소위 '신경제 메커니즘' (New Economic Mechanism)이라 불린 경제발전 정책에서 나타났다. 라오스 정부는 1986년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이 신경제 메커니즘으로 라오스는 소비에트 블록의 경제에서 벗어나 점차 서방 세계의 시장과 연결되었다. 라오스가 1990년대에 연평균 6.5%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은 경제 자유화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간주된다.⁴³⁾

그러나 신경제 메커니즘은 라오족 중심으로 계획되고 추진된 경제발전 정책이었다. 이 정책으로 정부를 지배하는 라오 룬 정치인들과 이권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소수 라오 룬 및 화인 사업가들은 국가의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힘을 더욱 공고히 장악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신경제 메커니즘에 의해 소수민족 주민들은 국가의 산업화 그늘에서 갈수록 주변으로 밀려났다. 1980년대 후반 경제 자유화 조치 이후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을 비롯하

42) M. J. Milloy and M. Payne, "My Way and the Highway: Ethnic People and Development in the Lao PDR," In Don McCaskill and Ken Kampe, eds., *Development or Domestication?: Indigenous Peoples of Southeast Asia* (Chiang Mai: Silkwoom Books, 1997), pp. 435-436.

43) 닉 프리먼, "라오스: 소극적 변화," 존 펜스틴 편, 『동남아의 정부와 정치』, 정연식의 역 (서울: 심산, 2005), 194쪽.

여 여러 국제적인 NGO들이 들어와 라오스에서 다양한 개발협력 내지는 개발원조 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라오 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신경제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추진 구조는 개발 협력 내지는 개발원조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적인 NGO들의 재정 지원 패턴과 사업의 방향에서 소수민족들의 상황은 대개 반영되지 않았다. 개발협력의 자금은 대부분 신경제 메커니즘이 표방하는 라오스의 거시경제적 발전 목표에 연계되어 지원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소수민족들의 인권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경제적 삶과 교육, 건강 등 사회복지 개선의 문제는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다.⁴⁴⁾

VI. 결론

라오스 정부와 소수민족 간 갈등은 라오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라오스 정부에 대한 불만의 폭넓은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동구권의 사회주의 정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1989년에 정부 인사 세 명이 라오스 정부의 비민주적인 정책 실행을 비판하고 다당제를 요구했다가 체포되어 1992년 11월 재판에서 14년 징역의 중형에 처해졌다. 그 중 한 명은 과학기술부 차관인 통숙 사이상키(Thongsouk Saisangkhi)였다. 1999년 10월 말에는 위앙짠에서 수십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라오스 정부에게 정부와 국회의 사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 헌법과 국제법에 따른 인권 존중, 모든 정치범의 석방과 라오스 국내 외 반정부 인사들의 사면, 반정부 단체 및 재외 라오스 애국 단체와의 대화 등 라오스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시위자들은 대부분 라오스국립대학교와 위앙짠의 한 전문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이었다. 시위 사태 이후 반정부 시위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체포되었는데, 그 중에는 위앙짠의 4개 구 가운데 하나인 시코또봉(Sikhotobong)의 구청장도 포함되어 있었다.⁴⁵⁾

2000년대 이후 라오스에서는 폭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0년 수도의 버스 와 시장에서 터진 폭발탄으로 인명이 살상되었으며, 남부의 팍세(Pakse)의 한 관광호텔에서

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치기도 했다.⁴⁶⁾ 2004년 2월에 위앙짠의 빠뚜사이(Patouxay) 기념 탑에서 폭발탄이 터졌다. 같은 달에 사완나켓 주에서도 폭발 사건이 있었다. 7번 국도와 13번 국도 등에서 여객버스를 포함한 통행 차량이 반정부 무장 게릴라의 공격을 받아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⁴⁷⁾ 2004년 5월에는 라오여성연맹 건물 밖에서 시한폭탄이 폭발했다. 또 위앙짠과 태국의 농카이(Nongkhai) 시를 연결하는 사판밋따팍(Saphan Mittaphap) 즉 ‘우정의 다리’ 개통 10주년 기념식에서 폭발탄이 터졌다. 라오스의 군 및 경찰 출신의 회원으로 구성된 반정부 지하운동 조직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⁴⁸⁾

이상의 상황과 본고에서 언급된 라오스 정부와 소수민족 간 갈등은 한편으로는 라오스 사회에서 정부의 국가 운영에 대한 불만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층에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오스의 국민은 비록 모두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라오스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중지 되어 자신들이 라오스의 국민으로서 평등과 자유를 가지며 민족적 정체성에 따른 삶을 누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라오스의 소수민족들의 정치적 희망은 라오스 내 반정부 조직이나 해외에 망명해 있는 반정부 단체의 간헐적인 무장 테러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밑에서부터의 변화는 라오인민혁명당이 일당독재의 통치 권력을 유지하는 한, 그리고 그 배후에 든든한 베트남 공산당의 지원이 버티고 있는 한,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베트남과 라오스는 두 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긴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라오스에 대한 군사적인 협조도 갈수록 늘고 있다.⁴⁹⁾

라오스에서의 민주화는 외부 세계의 간섭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그것은 2009년 10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세안 국가들이 회원국의 국내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⁵⁰⁾ 서방 세계의 라오스에 대한 간섭은, 인권 문제가 심각한 미얀마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이 미얀마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중국 때문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라오스에

44) M. J. Milloy and M. Payne, "My Way and the Highway: Ethnic People and Development in the Lao PDR," In Don McCaskill and Ken Kampe, eds., *Development or Domestication? Indigenous Peoples of Southeast Asia* (Chiang Mai: Silkworm Books, 1997), pp. 405-409, 437-438.

45) *The Nation*, Bangkok, 1999/11/3, 1999/11/4.

46) Südostasien aktuell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2000), p. 419; 닉 프리먼, "라오스: 소극적 변화," 존 펜스턴 편, 『동남아시아의 정부와 정치』, 정연식 외 역 (서울: 삼산, 2005), 218쪽.

47) Dean Forbes and Cecile Cutler, "Laos in 2004: Political Stability, Economic Opening," *Asian Survey*, 45, 1, 2005, pp. 161-162.

48) Shawn L. Nance, "Vientiane Burlesque," *The Irawaddy*, Bangkok, 2004/7/5.

49) Südostasien aktuell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5/2007), pp. 131-133.

50) James Hookway, "Tough Start for ASEAN Human Rights Commiss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09/10/23.

대해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 중국이 라오스를 감싸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⁵¹⁾

라오스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라오스 공산당 지도층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들이 라오스 정부의 국가 운영에 대한 라오스 사회 내에서의 불만을 감지하고, 그 해결을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하기 위해 라오스 사회 내에서 국가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라오스 정부는 2009년 9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장애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유엔반부패협약'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비준했다. 라오스 정부는 이로써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며 개개인의 신앙, 발언, 집회, 출판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약속한 셈이었다. 이것은 라오스 정부가 국민의 인권 특히 소수민족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하나의 중대한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지역 대표인 호마윤 알리자데(Homayoun Alizadeh)도 지적하듯이, LPDR 정부는 이제 상기 국제협약의 내용을 라오스 법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인권 보호를 실행하는 일만 남아 있다.⁵²⁾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라오스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극이 있어야 할 것이다.

51) Tangpua Siamchinthang, "China's Influence on Myanmar: Casting the Shadow of Darkness, Not Peace," Worldpress, 2007/3/1; Nga Pham, "China moves into laid-back Laos," BBC News Online, 2008/4/8.

52) The Nation, Bangkok, 2009/9/29,

참고문헌

- 닉 프리먼, "라오스: 소극적 변화," 존 편스틴 편, 『동남아의 정부와 정치』, 정연식 외 역 (서울: 심산, 2005).
- 조흥국 · 이광수 · 이희수 · 박구병 · 이한규, 『제3세계의 역사와 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 Amara Prasithrathsint, "The Linguistic Mosaic," In Grant Evans, ed., Asia's Cultural Mosaic: An Anthropological Mosaic (New York: Prentice Hall, 1993).
- Bounsang Khamkeo, "Asia's Other Burma," The Wall Street Journal, 2008/6/11.
- Grant Evans, "Secular Fundamentalism and Buddhism in Laos," In Oh Myung-Seok and Kim Hyung-Jun, eds., Religion, Ethnicity and Modernity in Southeast Asi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8).
- Grant Evans, "Ethnic Change in Highland Laos," In Grant Evans, ed., Laos: Culture and Society (Singapore: ISEAS, 2000).
- Grant Evans, "Apprentice Ethnographers: Vietnam and the Study of Lao Minorities," In Grant Evans, ed., Laos: Culture and Society (Singapore: ISEAS, 2000).
- Dean Forbes and Cecile Cutler, "Laos in 2004: Political Stability, Economic Opening," Asian Survey, 45, 1, 2005.
- Joel M. Halpern, Economy and Society of Laos: A Brief Survey (New Haven: Yale University Southeast Asian Studies, 1964).
- James Hookway, "Tough Start for ASEAN Human Rights Commiss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09/10/23.
- Paul Le Boulanger, Histoire du Laos Français: Essai d'une Étude chronologique des Principautés Laotiennes (Paris: Librairie Plon, 1931).
- M. J. Milloy and M. Payne, "My Way and the Highway: Ethnic People and Development in the Lao PDR," In Don McCaskill and Ken Kampe, eds., Development or Domestication?: Indigenous Peoples of Southeast Asia (Chiang Mai: Silkworm Books, 1997).
- Shawn L. Nance, "Vientiane Burlesque," The Irrawaddy, Bangkok, 2004/7/5.
- Nga Pham, "China moves into laid-back Laos," BBC News Online, 2008/4/8.

- Jan Ovesen, “All Lao? Minoritie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Christopher R. Duncan, ed., *Civilizing the Margins: Southeast Asian Government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Minorit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 Sathaban Vithayasat Sangkhom Haeng Sat, *Sok ru sonphao nai lao [라오스의 민족에 대한 이해]* (Wiang Chan: Sathaban Khonkhwa Sonphao Lae Sasana, 2009).
- Michael Schultze, *Die Geschichte von Laos: Von den Anfängen bis zum Beginn der neunziger Jahre*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1994).
- *Südostasien aktuell*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각 호.
- Tangpua Siamchinthang, “China’s Influence on Myanmar: Casting the Shadow of Darkness, Not Peace,” *Worldpress*, 2007/3/1.
- *The CIA Worldfactbook, Laos*, 2009/10/28.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a.html> (검색일 2009/10/31)
- *The Nation* (Bangkok), 각 호.
- The U.S. Department of State, “2008 Human Rights Report: Laos,” 2009.
-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8/eap/119045.htm> (검색일 2009/10/25)
- UNDP,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New York: UNDP, 2009).
- Vathana Polsena,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 David K. Wyatt, *Thailand: A Short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 투고일 : 2010. 06. 15/심사일 : 2010. 06. 30/게재확정일 : 2010. 08. 03